

태광, 석유화학 공장 무재해 표창

태광산업의 울산 소재 석유화학 1공장이 무재해 4200일을 달성해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은 7월21일 태광산업 석유화학 1공장을 비롯해 6개 사업장에게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와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태광산업 석유화학 1공장은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 결과, 1998년 10월21일부터 2010년 4월20일까지 무재해 14배(4200일)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밖에 태광산업의 석유화학 2공장, 한국바스프의 울산공장, 대한화섬의 울산공장 등 석유화학 사업장이 4곳 포함됐으며 현대건설과 SK건설 등도 표창을 받았다.

<화학저널 2010/07/21>